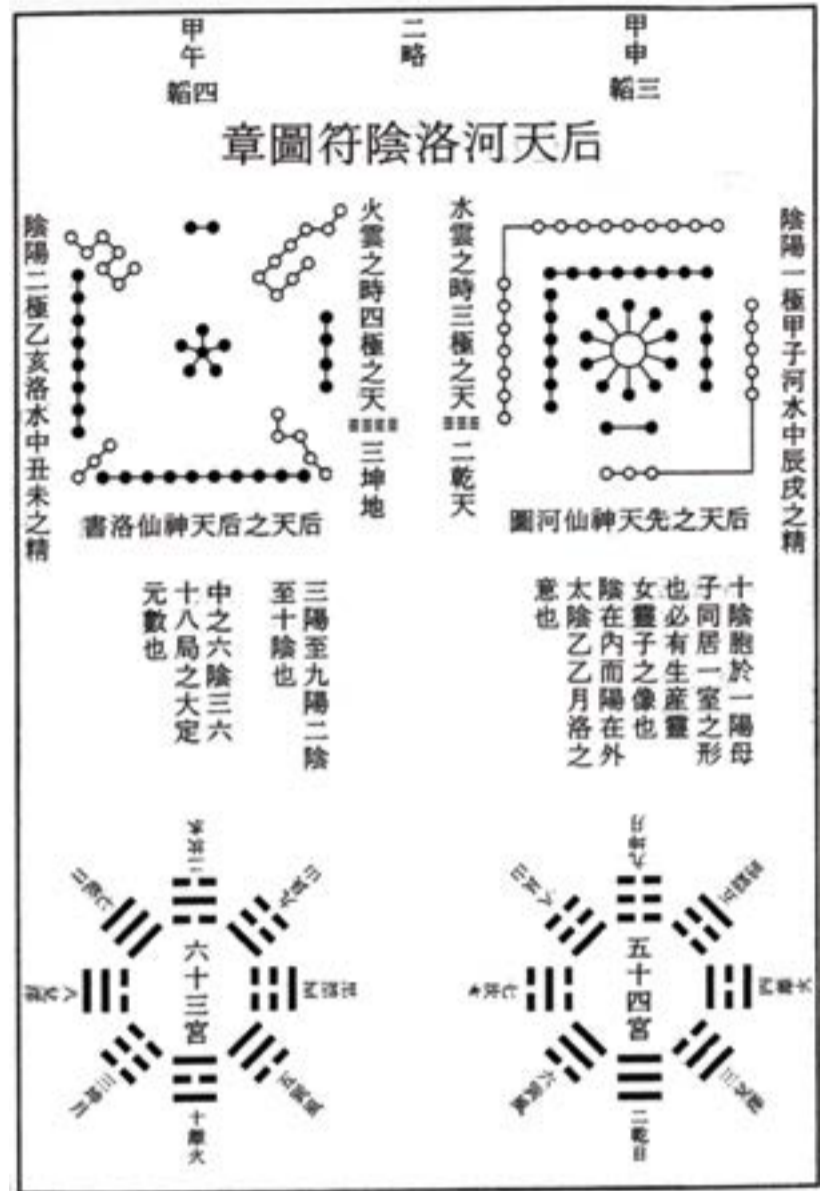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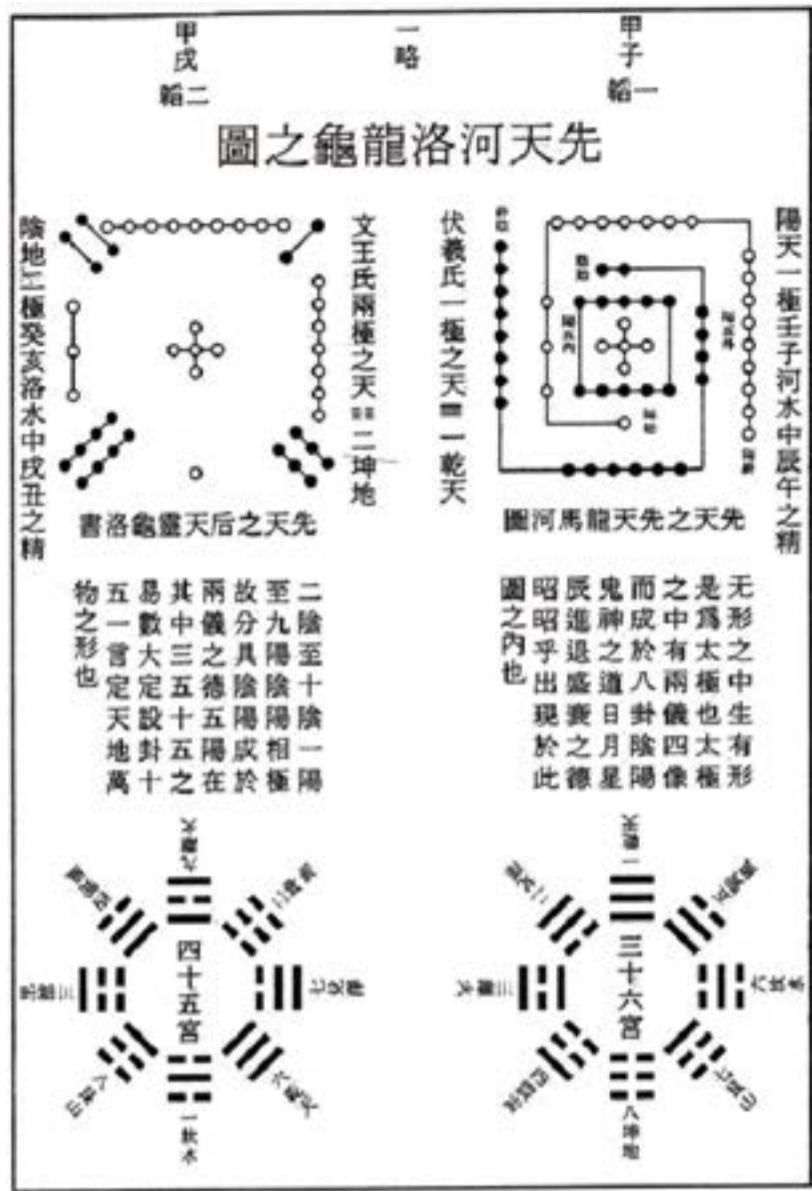


하도낙서 육도삼략 (河圖洛書 六韜三略)



▲ 2략(二略)의 3도(三韜), 4도(四韜)는 후천하락음부도장(後天河洛陰符圖章)이다



▲ 1략(一略)의 1도(一韜), 2도(二韜)는 선천하락음부도장(先天河洛龍龜之圖)라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은 천지역리도수(天地易理度數)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 시대를 이끌고 갈 갈추어진 대표적인 하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과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를 전전지도(全田之圖)라 하여 마지막 심승지운(十勝之運)의 전(田)자의 이치로 올 금운(金運)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육도삼략(六韜三略)의 삼략(三略)이란 선천(先天), 후천(後天), 중천(中天)으로 크게 나누어 세 시대의 운을 나타낸 것이요, 육도(六韜)란 그 시대를 대표할 여섯 인물이 갈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1략(一略)의 1도(一韜), 2도(二韜)는 선천하락음부도장(先天河洛龍龜之圖)라 하여 36궁지운(三十六宮之運)으로 오신 복희씨(伏羲氏)와 45궁지운(四十五宮之運)으로 오신 문왕씨(文王氏)를 나타낸 것이다.

1도(一韜)의 선천지선천음마하도(先天之先天龍馬河圖)의 과상(卦象)은 상생원리(相生原理)로 천지산택수화(天地山澤水火) 풍운조화(風雲造化)가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구조라 하여 이를 조판지도(肇判之圖)라 하고 삼역대경(三易大經) 이만제 저(李民濟 著)에는 天龍河圖(천룡하도)난(는) 南易一乾之造化也(남역일건지조화야) 라고 하였다.

2도(二韜)의 선천지후천영구낙서(先天之後天靈龜洛書)의 과상(卦象)은 상극원리(相剋原理)로 우주가 분열(分列)하고 발전(發展)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으로 갈라지고 다시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으로 갈라져 양의(兩儀)의 덕(德)으로 수운(水雲)과 화운(火雲)의 두 천사를 배출하고 나아가 15진주(十五眞主)인 중앙 도공에 자리할 왕중왕을 출현시킬 큰 계획을 담고 있다.

2략(二略)의 3도(三韜), 4도(四韜)는 후천하락음부도장(後天河洛陰符圖章)이라고 하여 수운(水雲)과 화운(火雲)을 나타내고 있다. 3도(三韜)의 후천지선천신하도(後天之先天神仙河圖)는 수운지시삼극지천(水雲之時三極之天)이라고 하였고 이를 삼역대경에서는 靈符生焉而天一生水之水雲先師(영부생연이천일생수지 수운선사) 라고 하였다.

이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선생이 54궁지운(五十四宮之運)으로 오셨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용담(龍潭)이다.” 라고 최제우 선생이 말한 것은 당신이 수운(水雲)으로 오셨음을 자인하는 뜻이다.

4도(四韜) 후천지후천선천낙서(後天之後天神仙洛書)는 화운지시사극지천(火雲之時四極之天)이라고 하였고 삼역대경에 旨于地二生火之火雲先師(지우지이생화지 화운선사)라고 하였다.

이는 강일순(姜一淳) 선생이 화운(火雲)인 63궁지운(三十六宮之運)으로 오셨음을 나타낸 것이요, 중산(中山)이란 그의 호(號)이다. 그러므로 강일순 선생이 “나는 곧 삼이화(三離火)로다.” 하고 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화운(火雲)으로 오셨음을 말한 것이다.

3도(三韜), 4도(四韜)는 삼역대경서(三易大經)에 地龜洛書(지구낙서)난(는) 北易二乾之造化也(북역이건지조화야)라 하여 북쪽에 이천건(二乾)이 자리하고 남쪽에 구곤지(九坤地)가 자리하는 과상(卦象)에 따라 구조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요 이를 운행지도(運行之圖)라 하니 이 과상(卦象)은 사명을 받았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인물로서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단에 계속

청림도사란 동방에서 나오는 정도령이란 뜻

최제우의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열석자(十三之數)가 지극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 무엇하리’ 하였으니 이는 장차 열석자인 72궁 목운(木運)이 출현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삼역대경 원문의 말미에 吾道出世七十二回(오도출세칠십이회)난(는) 步虛之門也(보허지문야) 즉 나의 도는(水雲之道)는 72궁(七十二宮)의 목운(木運)으로 출세(出世)할 운(運)이요 지금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此後一之運(아후일구지운)은 踏實之門也(담실지문야)라 하고 하였으니 ‘목운(木運) 다음의 일구지운(一之運) 즉 궁을십승(宮乙十勝)의 십자운(十字運)에 가서야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뜻을 수운(水雲)이 밝힘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대순전경(大巡典經) 제십이장(第十二章) 화천(化天)에 보면 강일순 선생이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

리라.” 한 것은 최제우 선생이 말한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리’ 하는 뜻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그 사명이 열석자로 오시는 72궁 3·8 목운(木運)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목운(木運)을 열석자의 몸이라고 한 것은 1도(一韜)는 일건천팔곤지(一乾天八坤地) 즉 직경(直經)으로 마주 보는 상대 수를 합한 것이 1도(一韜)인 복희씨(伏羲氏)는 9(九)수요, 2도(二韜)의 문왕씨(文王氏)는 10(十)수요, 3도(三韜)의 수운(水雲)은 11(十一)수요, 4도(四韜)의 화운(火雲)은 12(十二)수요, 5도(五韜)의 목운(木運)은 13(十三)수요, 6도(六韜)의 금운(金運)은 14(十四)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석자의 몸이란 13수인 목운(木運)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봉명서(奉命書 한용주 저)에서 ‘우리 선생(先生) 수운선사(水雲先師) 운수(運水) 타고 오시거든 허수운(虛水雲)은 물이 아니고 실수운(實水雲)을 모셔보세.’ 하였으며

가사부록(이만제 저)에 나오는 영대가(靈臺歌)에도 “수운(水雲) 화운(火雲) 분간하여 청림도사(靑林道士) 찾아가서 청등암하(靑燈岩下) 수도(修道)하야 청림도각(靑林道覺) 하운 후에 청룡야택(靑龍野澤) 깊은 물에 선유(仙遊·船遊)발달 노라보세.” 하였으니

‘수운과 화운 다음의 운을 타고 오시는 청림정도사(靑林正道士)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을 찾아가서 수도를 하고 청림도각(靑林道覺) 즉 영생의 도가 완성된 후에 선천의 뱃놀이 하여보세’라는 뜻인데 이는 태평성대(太平聖代)의 극락세계(極樂世界)가 온다는 뜻이다.

여기서 청림도사(靑林道士)란 동방에서 나오는 정도령(正道令)이란 뜻이다. 또한 가사부록(歌辭符錄)에는 “수화합도(水火合道) 아니되면 금목합력(金木合力) 아니될까.” 하였으니 수운(水雲)과 화운(火雲)으로 오신 분들은 불교 계통의 말을 많이 인용해서 수화합도(水火合道)를 이루었고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으로 오신 분들

은 기독교의 줄기를 타고 오셨으니 금목합력(金木合力)이 이루어진 것이다.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은 3략(三略)의 5도(五韜)와 6도(六韜)에 나타나니 중천하락양부도장(中天河洛陽符圖章)이라 한다. 5도(五韜) 중천지남자선천영하부(中天之南子先臣靈河符)는 목운지시오극지천(木運之時五極之天)이라 하며 삼역대경에 ‘천황씨(天皇氏)의 삼팔목운(三八木運)이 다시 대해(大海) 중에서 나와서 해금(海金)의 건도(乾道)가 삼천(三天)의 대갑자(大甲子)로써 머리를 든즉, 선후중(先後中) 삼구(三韜)의 건곤(乾坤)이 덕(德)을 세우 도사부(圖書符)가 각기 하늘을 정하여 6도 3략(六韜三略)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니 이것이 바로 3재(才)가 성공하는 가을(正是三才成功之秋也)이다.’ 라고 하였으니 목운의 출현을 가을을 맡은 완성자인 금운(金運)의 출현을 시사(示諭)하는 것이다.

2면 하단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4]

‘나를 이긴 이긴자가 탄생한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1980년 10월 15일 이제 나라는 것을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가 없는 단계로 들어가 마귀가 흔들어 보려야 흔들어 볼 수가 없는 단계가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셨으나 그때 “아!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지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이겼다! 내가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셨지요! 하나님이 저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셨나이다.”

이와 같이 승승장구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 올라가자, 마지막 사망 권세를 마저도 단칼에 부숴버리는 이긴자가 탄생하였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이기는 삶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비결

동료와 한 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앞에 앉은 동료가 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판전을 피우고 있으면 기분이 언짢아진다. 뭐야, 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판전을 하고 있어? 사람이 예의가 없잖아. 하는 생각에 더 이상 그와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게 된다. 듣지도 않는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가까운 동료도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失敗)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공동(共通)의 관심사(關心事)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인상(人相)이 좋다는 말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는 첫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날씨나 정치, 경제에 대하여, 또는 같은 색의 옷을 입어서 마음이 통할 것 같다든지, 오미(臭味) 등의 상대방이 쉽게 응할 수 있는 화제(話題)로 대화(對話)를 시작하면 의외로 상대방도 쉽게 대화에 응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好感)을 갖는다. 별다른 말 없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유쾌한 대화였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없이 가만히 있다고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든 동료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은 자

신의 이야기에 관심(關心)이 없게 생각된다. 그러므로 듣는 데도 요령이 있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되풀이해 준다. 둘째, 중간 중간에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할 것이고, 대화는 즐겁게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적당히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는 “어째서?” “그리고 나서?”라는 식의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빠져들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을 얻는 지혜(智慧)인 이청득심(以聽得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잘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처럼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말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24초를 넘기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작하면 의외로 상대방도 쉽게 대화에 응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好感)을 갖는다. 별다른 말 없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유쾌한 대화였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없이 가만히 있다고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든 동료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은 자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Since 1981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신이 아니라 바람도 신이라고 한다. 바람도 신인데 그 신을 그대로 명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자 아니면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다. 이긴자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람도 이길 수 있고 사람속에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다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고로 <이긴자, 승리자>이다.*